

# 군장병들이 기다리는 '보살들'

## 신행현장

연천 향지모임

지난 6일 오후 6시 경기도 연천의 평범한 가정집. 노란색 앞치마를 두른 10여명의 보살들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들이 만드는 음식은 다름 아닌 군인들이 제일 먹고 싶어한다는 떡볶이. 이미 큰 솥 2개에는 50인분의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음식에 간을 보고 있는 신안자 보살이 시계를 쳐다보고는 깜짝 놀란다. "서둘러야겠어. 이따간 법회시간에 늦겠다." 신 보살은 이미 오늘 저녁 떡볶이를 맛있게 먹을 군인분자들을 생각하고 있다.

음식을 만드는 이들은 모두 '향지모임' 소속 회원들. 대부분 주부로 구성된 '향지모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향기롭고 지혜롭게 살자는 취지로 98년 창립했다. 8년전 5사단 군법당인 광복 통일사에서 불교교양대학을 수강하며 인연을 맺은 이들은 군포도에 원을 세우고 매주 한차례씩 연천지역 5사단과 25사단 20여개의 군법당을 찾아다니며 불자 장병들에게 떡볶이, 초코파이, 커피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몇몇 보살들은 이에 더하여 별도로 군법당 건립 불사에 앞장서며, 군법당의 손길을 법당 한편에 옮겨놓은 향지모임 보살들은 끝이 군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우리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군생활을 마치게 도와주세요"

느낀다. 초코파이 하나 먹기 위해 처음 법당에 나온 장병들도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화받아 불심 깊은 청년분자로 거듭나는 모습이 뿌듯하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후 나태함이 없는가 자신들을 돌아보곤 한다는 것이 향지모임 회원들의 이구동성.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을 차에 싣고 향지모임 보살들은 정수포교



향지모임 회원들이 군법당인 정수포교당에서 군장병 불자들에게 떡볶이를 봉행하고 있다.

### 군법당 20여곳 후원 매주 음식마련 순회 "아들같은 군분자들 아무탈 없길 기원"

당으로 달려갔다. 대대군법당인 정수포교당 안에는 이미 군장병들로 가득했다.

"아! 어머니 오셨다." 술과 식기들을 법당 한편에 옮겨놓은 향지모임 보살들은 끝이 군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우리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군생활을 마치게 도와주세요"

향지모임 보살들은 두손을 꼭게 모으고 오늘도 이같이 서원했다. 법회후 다과시간.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할라" 이렇듯 보살이 격정적 되는 듯 말을 걸어보지만 군 장병들은 이미 음식상대에 빠져버린 듯 정신없이 떡볶이를 집어먹는다. 밥을 흘리며 열심히 먹는 장병에게 명공주 보살은 마치 아들에게 하듯 "먹고 싶거든 있으면 이야기해. 다음에 만들어 올테니깐" 하며 등을 쓰다듬어준다.

8년째 군법당을 찾았다는 박미영씨는 "지난 초파일 저녁 연동행렬을 마친 군인들이 보살님을 위해 준비했다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며 "전역해도 어머니 잘 계시고 전하나 편지를 하는 장병도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향지모임 회장 이형숙 보살은

"젊은 군인들에게 불법을 알리면 제대 후 가정을 가졌을 때 적어도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할 수 있다"며 "젊은 청년들이 미래 불교의 주인공이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군포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보살은 또 "5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는 회비로는 군장병들을 후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군법당에 차(茶)보내기 운동 및 군법당 건립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후원을 기다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향지모임은 군법당 후원 및 군장병을 위문하는 일 외에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봄 사찰순례를 통해 회원들의 친목과 신심을 다지고 있다.

(031)832-0719.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심청정 국토청정' 나와 자연 함께 사는 길

〈유마경〉에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청정하게 하면 이 국토도 청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불국토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정토(心淨土)가 불국토(佛國淨土)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불국토인지 예토(穢土)인지 는 각자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찰환경의 문제도 사찰과 국가의 행정기관, 기업, 자치단체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불국토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간에 진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찰 환경의 보존과



원행스님  
구행사 주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관련법 어디에도 사찰환경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불사와 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신라시대의 불교는 '생사일여 일즉다 다즉일(生死一如 即多 即一)'의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삼국을 하나로 하는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이러한 불교문화를 창조하고 민생안정과 국민정신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는 이러한 정신적인 구심점을 버리고 개발을 앞세워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했던 불교의 정신 및 역사·문화가 국가정책과 기업들의 이윤추구, 각 지자체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사찰의 불사도 무조건 크게 한다거나 화려하게 하지 말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적인 불사가 될 수 있도록 신심을 써야 합니다. 자연은 불법(佛法)의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자체가 하나의 불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찰의 불사도 자연과 함께 하고 그 형태에 맞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연생태를 무시한 불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가 융성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조건과 기후, 풍토에 맞는 형태의 가람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람을 수호하는 측면과 개인적인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곧 자신과 이웃, 우리 모두가 자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方便)입니다.

불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결국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생활속의 불교

## 스스로 생물을 찾지 않으면...

계절별 같은 '대학 입시'의 열풍이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때가 되었다. 희(喜)와 비(悲)의 상극선이 수많은 입시생과 그들 가족들의 기분을 하늘과 땅 차이로 벌려 놓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분을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바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이름은 필요 이상으로 그 의미가 부풀려져 있고, 상당 부분은 누구도 외면하기 힘든 현실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학'에 집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오죽했으면 '지옥'이니 '지옥'이니 하는 살벌한 말까지 생겨났을까.

어찌됐나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의미는 각별하다. 학력(學歷)의 차원에서든 학력(學力)의 이유에서건, 아마 전자의 의미

가 더 클 것이다. 왜냐? 보다 나은 조건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라면 학력(學歷)에 따른 차별을 비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만큼은 그러한 비판을 차별 적용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변명과 함께, 부모의 입장에서선 누구나 비슷할 것이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중적 태도가 하루 아침에 바로잡힐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학력 집착이라는 심리 상태의 이면에는 뿌리 깊은 인간의 나약성과 의타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믿는다. 돈·권력·명예·학벌 따위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밖에 있는 것들이다. 나의 '본래 면목'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실사 원한 대로 얻었다 할지라도 한 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이나 신기루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 듯이 덤벼든다. 꽃갈 단 맛에 배달 나는 줄 모르는 격이다.

남이 퍼준 물 한 바가지는 마시고 나면 빈 바가지가 된다. 스스로 자신의 생물이서 때 먹지 못하는 한, 누구든 남을 쳐다보며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학력'이라는 것, 남의 바가지에 든 한 모금의 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龍眼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칼슘과 마그네슘, 세라틴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남아 없이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발기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 현대 웨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가고싶은 설악 품고싶은 동해  
설악 콘도 23평 1,584만원을 350만원에

평형	총분양가	특별가
23평형	1,584	350

특정가입 내역	특별가입 혜택
평형	1,584
30억	방2/거실1 477

1 계약과 동시에 전국 20곳 이용 가능  
2 10년 만기주 전액환불 및 연장가능  
3 연회비, 임회비 평생면제  
4 초정약수 스파텔 VIP 초대권 증정  
5 초정약수 (탄산수) 무료 한정 공급  
6 양도, 양수, 매매 상속 가능  
7 신용카드 장기분할 가능 (12-18개월)

온라인 카드결제 안내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에 금 주 : 주) 현대웨미리리조트

문의 : 02) 545-4955

주) 현대 웨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 (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 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칼슘과 마그네슘, 세라틴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남아 없이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발기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 침술 무료 치료 안내

150건 (견비통, 어깨통증)  
1 경추 디스크 (목 관절염)  
1 요통 허리디스크  
1 좌골 신경통  
1 무릎 관절염  
1 만성 두통  
1 위장병 (위염, 위산과다, 위궤양)  
1 두통  
1 아토피성 피부병  
1 불임증  
1 협심증

영재 한의원 02-762-5510  
종로6가 백제약국에서 동대문쪽으로 가다가 첫번째 골목으로 들어옴

011-737-8881